


## 상투적 신앙

김상현



내 영혼이 그럴 거다  
세탁물처럼  
때 찌들어 허물 벗듯  
말쳐지는,  
웁은 세탁소 기름통 속에서  
숨도 못 쉬고 돌고 돌아  
때 구멍이 빠질 때에야  
거의 질식한 상태로 꺼내진다.  
교회당에 앉아 있던 나,  
그토록 알몸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버릇되어버린  
찬송과 회중기도와  
뜻 없이 외우던 주기도문  
아, 번질거리는 나의 기름때여!

제23권

42

2015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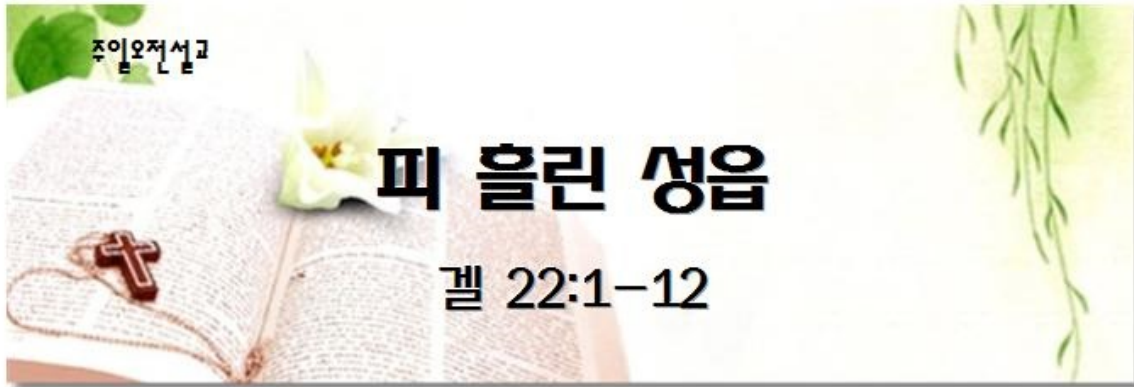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http://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 MATHETES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70-8714-9049 010-3323-9049 sys5806@hanmail.net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상한 심령이 되어 자신이 붙들고 버티는 힘으로 여기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만이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며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곧 은혜의 총만입니다.

요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으러 온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과의 대화 끝에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인에게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즉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는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에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그 여인을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한 여인의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인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세우고자 하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 4:15)라고 반응합니다. 관심을 좀 더 편한 자기 생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을 자신에게 말씀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한 남자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인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창녀의 자리에 세우고, 밑바닥까지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태로 밀어 넣으셔서 하나님만 절대로 의존하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입니다.

겔 1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별거 벗은 피투성이의 갓난아기로 들에 버려진 것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한 창녀로 행동하였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매일매일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할 명목상의 신부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한 자라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랑에 눈 뜬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심판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죄에 대한 처벌성 심판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배경으로 깔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심판하려거든 먼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곧 죄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이 죄 자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설사 심판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도 교인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십일조 하지 않고 기도 하지 않고 교회 일에 게으른 것을 죄로 규정하며 그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함으로 교인들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입니다. 이것은 분명 복음이 아니며 목사로서의 양심조차도 교회라는 욕망에 불들려 있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언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바르게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심판에 대해서는 덮어 버린 채 사랑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판이 언급되지 않은 사랑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거짓이고 위선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생명에 속한 구원 받은 자로서 이미 심판에서 건짐 받았는데 왜 계속 심판에 대해 들어야 하는가?’ 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심판에서 건짐 받았다면 더 이상 죄와 심판에 대해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 받은 자로서 여전히 죄와 심판에 매어 있다면 예수님의 피 흘림과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고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역동적인 삶을 놓치는 것이다’ 라는 반발적 질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여러분의 귀에도 참으로 그럴듯하게 들릴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말의 진위 여

부를 떠나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구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에스겔서와 함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 받았으니 심판과 상관이 없다면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심판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은 심판이 삭제된 사랑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과 연결하여 세상에서 부요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곧 '사랑 받음'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이 심판을 간과한 채 사랑을 말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하는 중대한 오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은 피 흘리는

성이었을 뿐이며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혀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가증한 곳이었을 뿐입니다.

6-12절을 보면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날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되십니까? 물론 행위만을 따진다면 거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 6-12절에 언급되는 가증한 일들은 모두 고관들의 악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고관들에게만 행해져야 마땅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쨌든 고관들이 행한 악행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까지 고관들과 함께 심판하고 이방인의 조롱과 함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1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네 가운데’라는 말에서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관들의 가증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관들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고관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의 가증한 일이 곧 자신들의 가증함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나를 잊어버렸도다”**라고 말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 버렸기에 가증한 일을 마음껏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관들과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가증한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 역시 가증한 존재임을 알았어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이며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증한 일이 행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이 행해지는 세상임에도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욕망에 붙들려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서 부요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가증한 일에 동참하여 같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살자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장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춤으로 결

람들을 제거한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입니다. 피 흘린 성읍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 흘린 피의 값은 저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흘린 피와 상관없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 흘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피 흘림과 함께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받을 자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마음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면 신자답다는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유혹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받은 것은 분명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심판에서 건짐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원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상은 본문에 등장하는 피 흘리는 성읍,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다' 는 것을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알게 되면 세상일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과 무관한 죽은 자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이고 심판의 대상임을 아는 그가 참으로 산 자입니다. 그래서 산 자에게서는 항상 '나는 죽은 자'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과 여러분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 흘리는 모든 가증한 일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할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저주 아래 있는 곳으로 바라보지 않음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귀함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될수록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존심을 앞세우고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애 통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곧 신자이며 산 자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일오후설교

(9.20일 설교 82강)

## 진리의 사람

엡 6:14-17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사도의 이 말은 악한 영을 상대하고 능히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신갑주만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상대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신자가 자신의 구원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실천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수 있는지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신갑주를 자세히 나누어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인데 과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까? 물론 적당한 말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취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말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신자가 실천하여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자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입으라’ ‘취하라’ 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어서 스스로 입어야 한다거나 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성된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실천과 행함의 여부와 정도를 보면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간계임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입으라’ ‘취하라’ 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 상태로 존재하는 신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 59:17,18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전쟁을 위한 용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사로 잡혀 있는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영을 이기고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용사로 오셔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사로 오셔서 악한 영을 상대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무장을 뜻합니다.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는 완전한 무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완전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멍 뚫린 독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욕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악한 영을 상대하여 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용사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옷 입은 신자로 악한 영과 씨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을 신자가 힘써서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악한 영 역시 자신의 믿음으로 상대하여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신자는 평생을 힘써 싸워도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자기 믿음에 대해 불신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의지와 열심, 선행과 믿음 그 무엇을 동원한다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가능한 싸움이라면 그리스도가 용사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을 상대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자인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이기자'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사되심을 외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는 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모습일 뿐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향은 행함입니다. 행함을 믿음의 증거로 바라보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악한 영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영을 상대하는 씨름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사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에겐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복음이 끌어 내리는 것은 인간의 행함입니다. 성경은 행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함도 의가 되지 않음을 말할 뿐입니다. '믿음에 의해 행해지는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믿음에 의해 행해지는 행함이라며 그 행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했다' 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내가 인정받고자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에 의한 행함은 분명 있습니다. 믿음은 사변이나 사고처럼 정신적 세계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는 실제적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한 행함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행함은 믿음이 아니면 행해질 수 없는 행함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는 것 등을 믿음에 의한 행함의 범주에 넣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불순한 생각과 열심히 행해지는 것들도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행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해체됨으로써 자연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의 의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행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고 외쳤던 것도 믿음에 의한 자기부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것이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신자의 승리입니다.

본문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제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서 사망으로 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과 교회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악한 영과 상대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과 상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됨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10.20일 설교 72강)

## 야곱의 사닥다리

창 28:10-22

야곱이 밧단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이삭의 명을 따라 집을 떠나 밧단아람의 하란으로 갑니다. 길을 가는 도중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해서 희망을 주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지만 본문을 야곱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

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꿈은 땅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로 시작합니다. 사닥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본래 땅과 하늘은 무엇으로도 연결되지 않은 단절된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세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의미 또한 단순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하늘의 거룩한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주의 세계와 거룩한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닥다리가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만들어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의로움이나 선함을 보시고 사닥다리를 세우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의도도 아닙니다. 인간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닥다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닥다리가 저주의 세상과 거룩한 세상의 통로라면 이 통로는 인간의 의와 행함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6,17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 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꿈 하나로 자신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처지는 초라하고 서글펐습니다. 명분은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난 것이지만 실제로는 에서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살아있는 한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처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집을 떠나 서글픈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

됨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지 야곱처럼 초라하고 서글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에게 함께 하신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본 사닥다리로 인해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있는 그곳이 곧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를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록 여호와와의 계심과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동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0-22절)**라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서원을 하는 것은 꿈에서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 지키시고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참으로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때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을 지켜주고 복을 주어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자신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원하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한 서원을 받기 위해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닙니다. 꿈의 의도는 저주의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땅에 거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 1: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꾸는 꿈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하늘로 들어

가는 문,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세상에 사닥다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늘의 영원한 세상에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답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자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야곱의 할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고 말씀하시는 것도 단지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야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의 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며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의 나 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 (자주쓰품)

### 오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전 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9장**  
교 독 문 **40(시96편)**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536장**  
성경봉독 **골 22:1-12**  
설 교 **신윤식 목사**

### 피 흘린 성읍(49장)

기 도 **설교자**  
찬 송 **290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이성희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 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09장**  
기 도 **김정덕 집사**  
찬 송 **365장**  
성경봉독 **롬 1:16-17**  
설 교 **신윤식 목사**  
**마음으로 마음에** **마음37장**  
기 도 **설교자**  
찬 송 **545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박상운 집사**

### 수요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73장

## 은석소식

1. 신자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복음이 아닌 수 많은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임을 늘 마음에 두기 바랍니다.
2. 교인주소록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 부터 금요기도회를 계속합니다.
4. 조규현 장로님께서 췌장암 수술 병으로 인해 언더로덤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750)